

2026 정기총회

함께 맞은 새해, 2026년도 MBC사우회 정기총회



감사패를 받은 김상옥 편집장(오른쪽)



오페라 VIP티켓을 받은 5명

(2면에 계속)

2026년 문화방송사우회 정기총회가 2월 26일 오전 11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에서 재적 회원 1,269명중 480명(위임장 제출자 378명 포함)이 출석한 가운데 열렸다.

양영철 사우회장의 “사우회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고 특히 발전 기금을 쾌척해 주신 사우 여러분들에게 거듭 감사드립니다”는 개회 인사와 함께 막이 오른 총회는 지난 한 해의 살림을 돌아보고 올해 예산을 준비하는 자리였다.

국민의례와 사가 제창에 이어 류근중 사무처장이 지난해 사우회의 주요 업

무를 보고했고 양 회장이 의안 심의에 앞서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1년간 사우회보를 제작해 온 김상옥 전 편집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하자 참석자들은 그의 수고에 박수를 보냈다.

이승염 감사는 “감사 결과 제35기(2025년 1월1일~2025년 12월 31일까지) 결산보고서 및 회계장부와 증빙은 적정히 처리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총회는 이어서 의안 심의에 들어가 2025년 수익 1억 8,409만원, 비용 1억 6,476만원(당기순이익 1,933만원)의 결산결과를 이견 없이 승인하였고, 2026년 수익예산 1억 7,657만원, 비용 예산 1억 6,445만원(당기순이익 1,212만원)의 원안도 이의 없이 통과시켰다.

본사 소식

■ 대상(大賞) 상금 1억 원을 잡아라! 2026 MBC 드라마 극본 공모 MBC의 올해 최고 기대작 <21세기 대군부인>과, 지난해 백상예술대상 2관왕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의 영광을 이어갈 드라마 극본을 공모한다. 신청은 4월 1일부터 8일까지 '2026 MBC 드라마 극본 공모' 홈페이지(writer.imbc.com)로. 수상 작가들에게는 별도의 작업 공간과 창작지원금이 매월 지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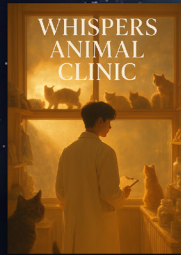

■ 국내 최초, '책 읽는 팝업'을 열다 MBC 사내독립기업의 컬처브랜드 '온더페이지'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2일까지 서울 한남동 옛 대사관 저택에서 독서 체험 팝업스토어를 열었다. 팝업 스토어는 향기와 조명, 음악 등 오감 요소가 설계된 공간에서 휴대폰 없이 모래시계의 속도에 맞춰 책을 읽는 '질문의 방' 등을 운영했다.





■ <권순표의 뉴스하이키> 12분기 연속 청취율 1위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키>이 2026년 1분기 청취율 조사에서 국내에선 유일하게 두 자릿수 청취율인 15.1%를 기록했다. MBC 표준FM(95.9MHz 수도권 기준)채널도 점유청취율 25.4%를 기록하며 압도적 1위에 올랐다.


■ 지상파 3사의 스포츠 중계권 공동협상체 「코리아폴」의 새로운 모델은? 한국방송협회는 2월 12일 여의도 FKI 컨퍼런스센터에서 '스포츠 중계권과 미디어 주권의 위기' 세미나를 개최했다.

Ai Contents La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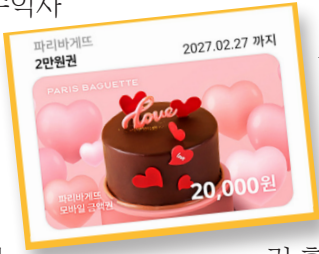
창의적인 콘텐츠 제작과 차별화된 방송 인프라 공급을 통해 방송 산업의 한축을 담당해왔던 MBC C&I 가 AI Contents Lab을 출범시켰습니다.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광고 등 모든 콘텐츠 분야에서 AI 창작기술의 주역이 되고자 합니다.



다만 본사 꽃집 전대 사업과 관련해 '사우회가 본사에 납부하는 임대료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남는 금액이 5백만 원 수준에 그친다'는 점이 언급되었으나 양 회장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사우회 재원은 모두 소중한다"고 밝히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류 처장은 "수익사업의 비용에는 사우회의 공동비용 일부가 안분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총회는 이어서 장명호 전 사우회장을 만장일치로 사우회 고문으로 추대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사우들 전원에게는 2만 원 상당의 파리바게뜨 모바일 상품권이 카카오톡으로 전달됐다. 작은 정성이지만 한 자리에 모인 사우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표시였다.



또한, 추첨을 통해 5명의 사우에게 김

영철 대한민국오페라조직위원회 위원장이 제공한 오페라 갈라 콘서트 VIP 석티켓(20만 원 상당)을 각각 2장씩 증정했다. 뜻밖의 행운에 총회장은 잠시 환한 웃음과 박수가 나왔다. 누군가에게는 또 하나의 봄날을 여는 초대장이었을 것이다.

총회를 마친 사우들은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지하 2층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한식 뷔페로 점심을 함께했다. 오랜만에 마주한 얼굴들, 서로의 안부를 묻는 소리, 그릇에 담긴 따뜻한 소고기뭇국처럼 훈훈한 말들이 오갔다.

결산과 예산이라는 숫자가 등장하는 총회지만 마지막을 채운 건 결국 사우들이 서로 건네는 온기로 사우회는 또 한 해를 건너갈 힘을 확인했다.

한편, 이번 총회에 앞서 2월 5일, 2026



2026 사우회 이사회가 의안을 심의하는 모습

년 사우회 이사회가 사우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회장 등 재직 이사 21명 중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사회에서는 류근중 사무처장이 보고한 2025년도 결산, 2026년 예산안을 이의 없이 원안대로 승인 가결했다. 이와 함께 이사회는 사우회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자문받기 위해 역대 회장들이 임기 후 고문으로 추대되어 온 전

례에 따라 장명호 전임 사우회장을 사우회 고문으로 추대하기로 했다. 이사회에서는 또, 사우회의 유일한 수익사업인 꽃집 전대 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40년 경력을 가진 새로운 임차인의 네오블루매플라워 꽃집을 사우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자는 의견도 나왔다.

정리: 편집장 윤영무

추모사



송재(松齋) 서규석 국장님을 추억하며

‘어른 한 사람을 잃는다는 건 도서관 하나를 불태워 버리는 것과 같다’

한 사람의 삶 속에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이 녹아 있고 그 경험치는 후대 사람들에게 앞길을 인도해 주는 나침반이 되어 주는 지혜 때문에 나온 말이겠지요. 제가 MBC 입사 때, 송재 서규석 국장님은 우리의 나침반 역할을 해 주시고 PD 50여 명밖에 안 됐던 시절 10명이란 거의 20%에 육박하는 신입 PD를 뽑아 DBS, TBC, CBS 등 민간방송과 무한 경쟁에 불을 지피셨습니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문화공보부 전파관리국이란 핵심 부서 공무원으로 재직하시다가 개국을 앞둔 <한국문화방송주식회사>에 스카웃 되어 평생 방송인으로 사시다가 한국방송이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인 올 초에 백수를 앞두고 영면하셨습니다.

제가 입사 2년 차에 늦게 군에 갔다 오면서 찾아뵈는 적이 있었습니다. 짧은 차기에 전직도 염두에 두고 인사드리러 갔는데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지”라고 해 주신 말씀이 저를 평생 MBC를 붙들게 만든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와 같이 입사한 동기생들 모두는 서 국장님과 관계에서 특별한 사유 하나씩은 갖고 있습니다. 그 연결고리가 롱 펠로우의 <Arrow and song>이라는 시였지요. “내 어렸을 때 하늘로 화살 하나 쏘아 올렸네. 화살은 어디로 날아갔는지 알 수 없지만 훗날 어느 시골 참나무에 박힌 화살을 난 보았네”

방송이라는 보이지 않는 전파는 누군가의 가슴에 커다란 울림으로 다가오고 평생 기억으로 남는다는 “화살과 노래”라는 시. 그 시에 방송의 속성을 비유했던 신입사원 강의는 지금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배님은 MBC TV의 개국으로 TV 경쟁이 본격화되고 라디오 매체가 위기를 맞게 되자 <Radio Renaissance 30>, 즉 라디오 청취율을 30%까지 끌어 올리자는 캠페인 목표를 제시하고 앞장선 뛰어난 전략가요, <밝아오는 우리 마을> <푸른 신호등> 등 특정 청취자를 타깃으로 하는 대상(對象)방송을 처음 도입한 편성 전문가로서 TV 개국 때는 <명교수 명강의>를 만들어 김형석, 안병욱, 김태길 교수 등을 통해 당대 인문학 붐을 일으키셨습니다.

“늘 책을 끼고 산다”, “매사에 치우침이 없다”, “공과 사가 엄격하다” 는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평가입니다. 그렇기에 80년 언론 통폐합 당시 해직되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해직 후, 대학에서 방송 실무를 강의하며 미래 방송인을 양성하고, 후엔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그리고 방문진 이사장이라는 국장님과 잘 어울리는 자리를 맡아 방송문화 진흥에 이바지하시고 방송계를 떠나셨습니다. 평생 소장했던 방송 관련 전문 서적들은 후배들을 위해 MBC에 기증하여 여의도 자료실에 <송재문고>라는 서가에 비치하고 있었는데 상암동으로 이전하면서 지금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입사 동기생들이 주동이 되어 《허공에 화살을 쏘아 올린 까닭은》이란 선배님의 고회 기념 문집을 헌정했던 일도 돌이켜 보니 뿌듯한 순간으로 남습니다. 입사 50주년 때 기념 만찬을 마치고 능동 자택으로 찾아뵙고 차담을 하고, 작은 선물과 함께 사진 한 장을 남기며 옛이야기를 나누었던 일도 기억합니다.

영면에 드신 지금도 선배님과 지나온 시간이 어제 일처럼 선명히 떠오릅니다. 선배님이 머물다 가신 자리에는 아직도 온기가 가시지 않았고, 그 삶의 결이 남긴 향기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장명호(사우회 고문)



왼쪽부터 장명호, 황기찬, 故 서규석, 故 고무송

‘지중해의 푸른 보석’ 분단국「키프로스」를 가다

이석일 사주의 렌즈가 잡은 분단의 일상들



고대 유적지 앞에 선 이석일 사주

경기도 크기의 「키프로스」

지중해 동쪽 끝, 지도 위를 유심히 살펴보면 작아 보여도 면적은 경기도만 합니다. 열흘간 카메라에 담은 건 단순히 ‘예쁜 바다’만은 아니었습니다. 결핍을 풍요로 승화시킨 사람들의 단단한 일상이었습니다.

키프로스의 바다는 눈이 시릴 만큼 푸릅니다. 하지만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은 인간의 기술과 생존이 섞였습니다. 여름 강우량 0mm인 척박한 땅이라 (연평균 450mm 내외) 올리브 나무와 가시나무밖에 자라지 않고 석회암 투성이인 산에서는 풀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식수의 70%를 바닷물을 담수화해 마실 정도니까요.

제가 갔을 때는 겨울이었지만 평균 19도 정도라서 바다에서 수영하는 사람도 있고 반 팔을 입고 다녀도 무난했습니다. 그러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니까 스키장이 있고 추웠습니다.

포도는 이렇게 척박한 땅에서 자라야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 수 있다고 들었지만, 농지가 많지 않아서 포도주만 마시고 살 수는 없을 텐데 뭘 먹고 살지? 궁금증은 카메라 셔터를 누를 때마다 답기는 눈부신 풍경처럼 지독한 갈증 위에서 피어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사진 속의 고요함은 그래서 자연의 혹독함을 이겨낸 인내의 다른 이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음식문화는 세계화되어 맛집이 많았습니다. 그리스와 터키문화가 합쳐진 기로스(케랍)는 양도 많은 데다 맛까지 있습니다. 이 섬에서 유래한 구워 먹는 할루미 치즈, 그리고 문어, 오징어, 농어 등의 해물 요리가 일품이었고 ‘매제’라는 지중해 특산품 코스요리는 20~30 가지가 조금씩 나왔습니다.

이들의 주식은 쌀과 파스타가 아닌 다양한 빵입니다. 농사짓기 힘든 환경 때문인지, 투박한 숯불 꼬치구이(수블라키)로 주식을 대신하는 듯했는데 숯불향이 가득 밴 고기 한 점과 신선한 올리브, 요거트 소스인 차지키(Tzatziki)면 식사 끝. 꼬치를 하나씩 여유 있게 빼 먹으며 옆 사람과 끝없는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진짜 여유’가 무엇인지 보는 듯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분단국가

키프로스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도가 나뉘어 있는 분단국인데도 긴장감 대신 묘한 정적이 흐릅니다. UN이 1963년, 섬을 좌우로 횡단하는 완충지대를 설정해 남-북키프로스가 어제와 다름없는 일상을 사는 모습은 오히려 경이로운 평화로 다가왔습니다.



난파선마저 그림이 되는 지중해의 푸른보석

건조한 날씨 덕에 이곳은 그리스, 로마, 비잔틴의 건축물, 신전, 모자이크 등과 같은 다양한 유적들이 잘 보존되긴 했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 그런 유적들은 이곳이 완결된 문명이 이룩된 장소가 아니라 흔들리는 경계 지역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숲의 아폴로 신전

《그리스인 조르바》의 저자 카잔차키스는 그래서 조르바를 아테네도 파리로 아닌 빛과 바닷물결뿐인 이 섬과 크레타섬에서 살아 숨 쉬게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문득 제가 좋아하는 카잔차키스의 묘비명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나는 자유다.”



일상이 평화로운 골목풍경

조르바처럼 신발을 벗고 푸른 바다를 보며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싶었습니다. 세상의 속박을 벗어던지고 삶 자체를 온몸으로 겨안고 말이죠. 살아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그럴 만하기에 충분했으니까요.

3차 시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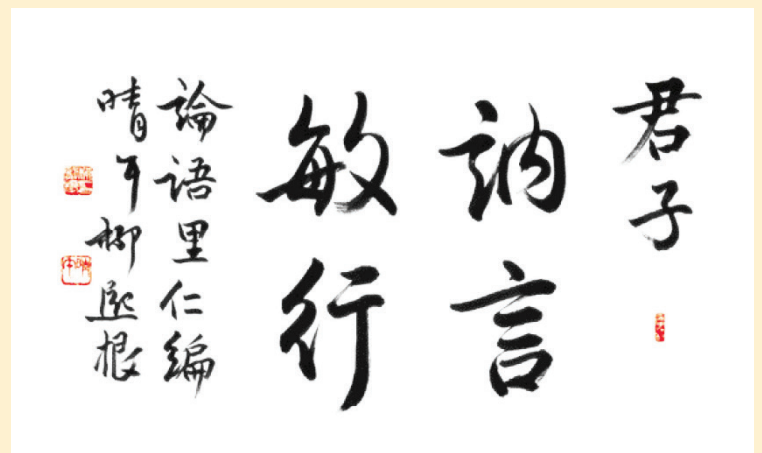
AI와 친해지기! “이제 나도 써먹는다”

MBC 사우회원 ZOOM AI 무료 특강

- 일 자 : 4/6(월), 4/9(목), 4/13(월), 4/16(목) 총 4회
- 교육 시간 : 19:00 ~ 21:00
- 교육 방법 : 온라인 ZOOM 수업
- 교육 인원 : 40명 내외 ※2025년 AI특강 미참가자 우선, 선착순
- 준비 사항 : PC나 노트북 또는 태블릿에 ZOOM 설치, 스마트폰으로 실습(*추후 카톡으로 안내 예정)
- 내 용 : AI 개요, ChatGPT 이해/활용/실습/이미지 만들기/고급기능/최신기능, Claude Gemini Grok SORA 등 소개, 시니어의 AI 활용방안 등

▶ 신청 : 3/25~3/27, 사무처 ☎ 02-722-7416

오늘의 캘리



유희근(보도) 사주의 글씨

君子 欲訥於言 而敏於行(군자 욕눌어언 이민어행)
군자는 말은 어눌하게 할지언정 행동은 민첩하게-논어(里仁)편



사우탐방

자전거를 타면 돈을 번다고?

박영숙 사우의 유쾌한 삶의 페달

새로운 날은 예고 없이 시작된다

“약속 날짜를 잡을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만나면 되는 거지.” 한 템포 앞서 결론을 내리는 박 사우(이하 그녀)의 태도는 막힘이 없다. 전화한 그날 점심 약속을 잡았다. 돌아켜 보니, 그녀가 좌고우면하는 걸 본 기억은 내게 없었다.

아나운서 시절, 그리고 다른 부문으로 전환하였을 때조차 “그래서 결론이 뭐죠?”라고 물었다. 사람에게 따라서는 ‘성급하고 무모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달리 보면 현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지 검토하는 ‘결과 중심의 현실주의자’일 뿐이었다.

여의도 한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2019년 은퇴 이후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런 태도는 흔들림이 없었다. 2022년 이탈리아 40일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였다. 많이 걸어서 그랬는지, 무릎이 퐁퐁 부어있었다. 정형외과에서 X-레이를 찍어보는 게 상식이지만 그녀의 선택은 예상 밖이었다.

“아직 다리가 멀쩡하게 붙어 있는데... 무슨 병원? 절룩거리기는 하지만 걸을 수 있고 자전거를 타도 무릎에 큰 무리가 가지 않을 듯 해서 자전거를 타고 바로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래도 먼저 정형외과에 가야 하는 게 아닌가요?”

“자전거를 타면서 혼자서 수지침을 놓아보고, 한의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자생력으로 낫지 않을까? 싶었어요. 드라마를 보면 의사들이 수술은 잘됐습니다... 하는데 환자는 죽잖아요. 병원 가기가 꺼려지더라고요”

그녀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어갔다. “처음엔 무릎에서 덜 거덕덜거덕, 경첩이 헐거워져서 아

귀가 맞지 않는 소리가 났어요,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나면 경첩 나사가 조여지는 느낌이 드니까 자전거가 답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요. 무릎 주변 근육이 탄탄해져 상태가 좋아졌거든요”

그때부터 손녀를 보다가 사부인과 교대하고 자전거를 끌고 나올 때 인사가 “저 돈 벌고 오겠습니다”였다. 자전거를 타서 건강하면 병원에 가지 않고 병원에 안 가면 돈이 들어가지 않아 돈 버는 것이라는 그녀다운 결론이었다.



박영숙 사우의 쌍둥이 손녀와 아들

전교 꼴찌 아들, 장교 만들기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 패션모델처럼 건넌니 뒤돌아서 물었다. “걷는 모습이 이상한가요?” 전혀 이상하지 않았으므로 “정상”이라고 했더니 아들의 숨은 비화를 꺼냈다.

“저는 아들이 고등학교 전교 꼴찌라고 해서 한숨을 쉬어본 적이 없어요. 뒤로 바로 돌면 꼴찌가 1등이 되는 거니까요. 다만 아들이 머리와 옷을 전교 1등처럼 하고 다니는 걸 보고 ‘꼴찌면 꼴찌답게 놀아!’라고 지적한 적은 있어요. 잘하는 애들처럼 굴면 자기 자신에게 사기 치는 꼴이 돼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없기 때문이었지요.”

듣고 보니, 어찌어찌 지방 대학교에 들어간 아들은 갑자기 학교를 그만두고 중국으로 유학하겠다고 나섰다. 그녀는

아들의 성적이 바닥이었던 초등학교 6학년 때, 녀석이 20살 성년이 되면 중국이 뜰 것 같아서 겨울방학 때 중국어를 배우게 했는데 그게 실마리가 될 줄이야! 아들은 난징대학에 입학해 제법 근사한 꼴찌의 반란을 일으켰다. “동창이 그러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더니 결국 일으켜 세웠다고요. 다만 아들이 졸업을 앞두고 병역 기간이 짧아진 사병으로 입대하겠다는 게 나이가 있어 고생할 수도 있고 장교는 배우는 게 많으니 학사 장교 시험을 보도록 권했지요”

아들은 이듬해 4월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5월에 체력 시험과 면접을 위해 귀국했는데 이때를 맞춰 그녀도 휴가를 냈다. 그동안 방목하듯 키운 아들에게 처음으로 깊은 관심을 보여주고 같이 오래달리기를 연습하기 위해 서였다. 첫날부터 한강 변을 함께 뛰었다. 그러나 183cm의 아들이 달리는 속도를 맞추기가 힘들어 다음 날 부터 자전거를 타고 앞장섰다.



자전거로 자생력을 키우며 오늘도 달린다

아들은 엄마~ 엄마~ 외치면서 그만 뛰자고, 천천히 가자고 애원했다. 하지만 그녀는 못 들은 척했다. 거리를 계속 유지하며 원효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그러니까 여의도 집까지 왕복 20km를 뛰도록 만들었다. 오래달리기 측정에서 4등으로 들어온 아들은 ‘엄마의 코치’ 덕분이라고 고마워했다.

“문제는 면접이었어요. 5명씩 들어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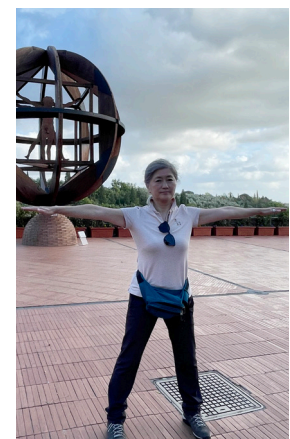
면접에서 예상대로 면접관은 고등학교 성적표를 보고 ‘전교 꼴찌가 장교 자질이 있느냐?’고 물었던 거지요”

“예상대로라니요?”

“학사 장교 접수 때 고등학교 성적표를 제출했었던 거예요. 어느 면접관이라도 꼴찌 성적표를 보면 그런 질문을 하지 않겠어요? 면접 전날 아들에게 전교 꼴찌는 자랑거리일 수 있다. 누구나 바닥을 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라고 하면서 그 점을 부각해 예상 질문 답변을 준비시켰던 거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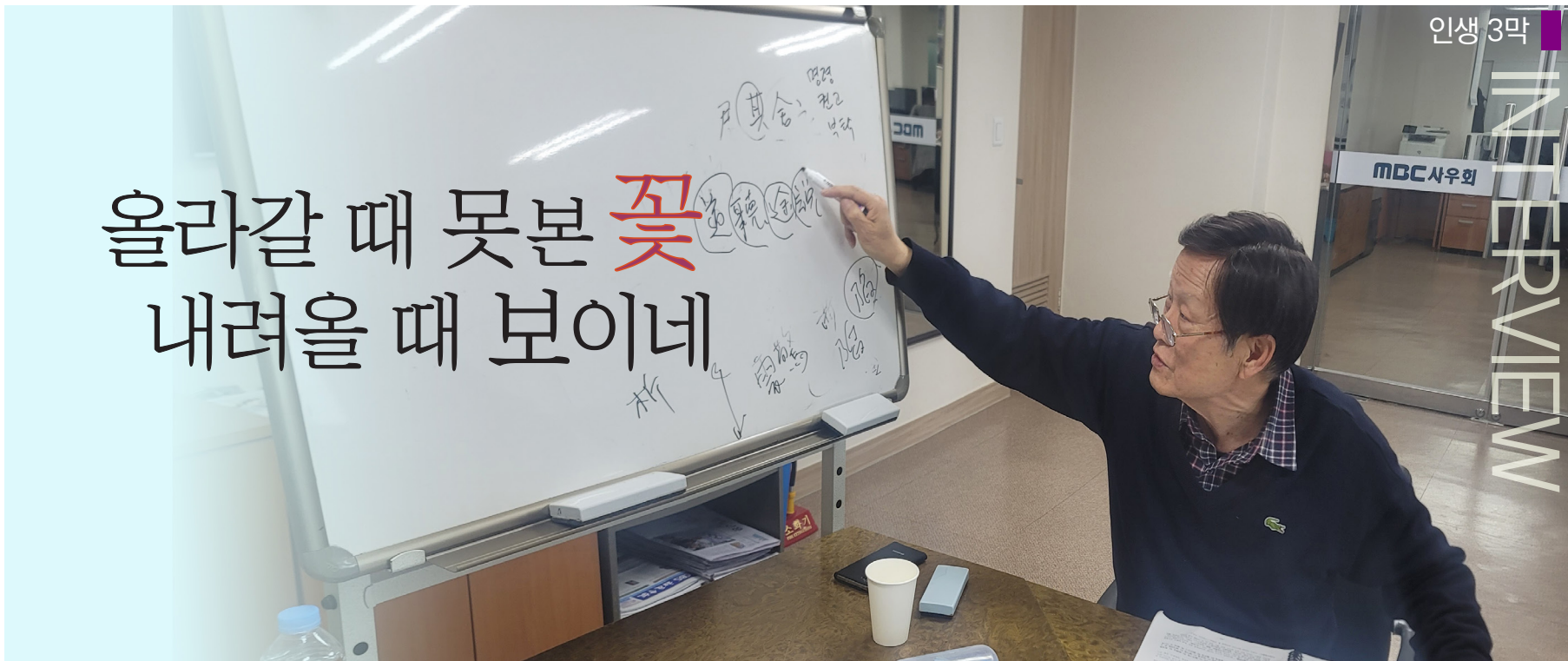
그녀가 들려준 아들의 답변은 이렇다. “저는 꼴찌를 해 봤기 때문에 부대의 낙오자가 된 사병의 심리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들을 추스르고 함께 협력하면서 멋진 부대를 만들 것입니다” 통신장교로 보임(補任) 받은 아들은 장성들이 중국 출장을 갈 때마다 국방부에서 통역장교로 출장 명령을 내려 그 역할까지 하느라 무척 바쁜 군 생활을 보냈다.

다리가 움직이면 병원 대신 자전거에 오르고, 약점 앞에서 멈추지 않고 아들을 장교로 만들어 사회생활을 알차게 시작하도록 만든 그녀야말로 삶을 말과 행동으로 밀고 나가는 언어운사(言語運士)가 아닐까?



다빈치의 고향인 빈치에서

꽃꽂이하게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인생 3막

INTERVIEW

고문(古文) 번역가 이진세의 세상사 강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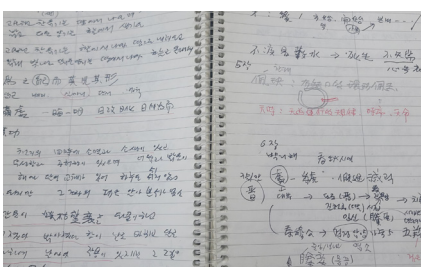
작년에 팔순을 맞은 이진세 사우(전 아카데미 사장)는 12년째 사우회의 고전(한문)동호회를 이끌고 있다. 그동안 《격몽요결》, 《소학》, 그리고 《논어》, 《맹자》, 《도덕경》을 떼어 책거리 했고 지금은 《장자》를 함께 공부하고 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반부터 사우회 회의실에서 시작되는 그의 고전강독에는 양진수(동호회장), 권혁화(총무), 이용구, 문성수, 유재석 그리고 필자 등 6명의 회원이 참여한다. 12시 반까지 2시간 동안 이어지는 수업은 먼저 회원들이 예습한 원문을 읽고 - 이용구 회원은 '성독(聲讀)'을 시조 읽듯 하니 갖 쓴 유생이 옆에 있는 것만 같다- 해석하면 그가 시대적 배경과 역사적 사례를 불러와 직역과 의역으로 이해하기 쉽게 문장을 풀이한다.

“교학상장(敎學相長)이지요. 가르치며 배우는 것이라, 실은 제가 더 배워요”

그렇게 말하는 그의 교재와 노트는 준비해 둔 메모가 뽁뽁하게 차 있다. 2004년 3월, MBC아카데미 사장을 끝으로 방송계를 떠나고 나서 그는 비로소 자유의 몸이 된 줄 알았다. 그러나 자유는 휴식이 아니었다. 5년을 쉬고 나니, 점점 나태해져 가는 자신을 추스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2009년 성균관대 한림원에서 1년, 이어 한국고전번역교육원에서 3년, 다시 독학으로 3년, 총 7년간 한문 공부에 매진해 한국고전번역원 번역위원 시험에 합격했다. 그의 나이 69살 때였다.

한국고전번역원은 교육부 산하의 공공기관이다. 고전 문헌의 번역과 연구를 담당하는 곳으로 그는 다른 번역위원들과 일성록(日省錄, 1760년 영조 36년부터 1910년까지 150년을 기록한 2,329권의 왕실 일기) 번역을 맡아 한 줄 한 줄 역사와 씨름했다.

“공부에 정년이란 없잖아요. 더구나 고전 번역이란 문장 하나하나의 의미를 세밀하게 살피고, 원문의 뉘앙스를 최대한 살려 우리말로 풀어내는 작업입니다. 문화유산을 계승하고 역사 왜곡이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힘을 쏟아야 하니까 경험 많은 사람이 유리한 점도 있다고 봅니다”



준비된 메모로 가득한 노트

그는 번역위원이 되고 나서도 사우회의 고전동호회를 이끌었다. 그에게 'AI 시대에 한문 강독이 필요한 이유'를 물었더니 웃으며 말했다.

“인공지능은 사전적 해석이나 기존 정보의 수집과 정리는 잘하겠지만 아직 가치판단에 필요한 사고력은 없는 것 같아요. '의역은 방탕한 미녀'요, '직역은 정숙한 추녀'라고 하잖아요. 결국 한문 원전을 보고 사람이 해석하지 않으면 글맛을 느낄 수 없으니... '정숙한 미녀'가 되기 위해선 몸소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알아야 AI에게 수준 높은 질문을 할 수 있고 원하는 응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이어, “100여 년 전까지 우리 선조의 기록은 물론, 동아시아 3천 년 역사가 모두 한문으로 남아있으니 수천 년 동안 살아남은 불변의 지혜에 접근하려면 공부해야만 한다”고 했다.



성독하는 이용구회원과 양진수 회장

하지만 한학에 몰입했던 그도 살아온 인생이 후회스러움은 어쩔 수 없나 보다. “직장 생활 30여 년을 생각 없이 시계추처럼 틀에 맞춰 살아왔고, 세상을 보이는 대로가 아닌, 보아야 하는 대로 보았고, 있는 대로 보지 못하고 선입견의 노예가 되어 습관대로 기계처럼 살아온 것만 같다”라고 했다.

그렇지만 선배님 정도면 훌륭하게 살아오신 게 아닌가요? 하고 내가 물었다.

“아닙니다. 그동안 내가 남을 아는 데는 능숙했지만 나 자신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50살이 되어야 지난 49년 동안의 잘못을 안다'는 '五十而知四十九之非' 라는 문장이 있고,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꽃'이란 시도 있잖아요? 내가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야 세상 풍경이 조금씩 눈에 들어오고, 내가 나를 모르고 철없이 살았음을 점점 깨우치게 되니까요”

최근 “30여 박스 분량의 책을 후배에

게 넘겨주고, 노자의 《도덕경》 등 몇몇 권만 남겼다”는 그는 “도덕경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이유를 알고 싶으면, 《무위당 장일순의 노자 읽기》나 《최진석 교수의 도덕경》을 보시라”고 귀띔했다.

그는 《도덕경》의 81장 5천여 자 중 '상선약수(上善若水)'를 으뜸가는 금언으로 치는 데 그 이유로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무르는 가장 훌륭한 도(道)에 가깝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런 그이지만 비우고 싶어도 비울 수 없는 응어리, '내가 왜 한국고전번역원을 그만두어야 하는 것이냐?'는 질문이 항상 그를 따라다닌다. 일성록을 한창 번역 중일 때 국가 예산이 부족해 65세 이상은 그만두어야 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번역위원 모임을 결성해 부당함을 항변하려고 했으나 나이 든 사람이 물러나야 후배들이 설 자리가 있을 것 이란 생각에 모든 걸 내려놓고 그만뒀다. 그때의 아쉽고 서운함을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으랴!



이진세 사우가 번역에 참여한 일성록

“이제 자유의 몸입니다. 졸릴 때 자고, 배고플 때 먹지요. 어느 인디언이 '왜 문명인은 밥 먹는 시간을 정해 놓느냐?'고 물었다더니 제가 그렇게 묻고 다닙니다”

인터뷰/정리: 편집장 윤영무

/회/원/동/정/

/공/지/사/항

방송기자클럽 회장취임

조기양(보도) 사우가 이선명 전 회장과 이취임식을 갖고 한국방송기자클럽의 제19대 회장에 취임했다. 조 회장 임기는 올 2월 23일부터 2028년 2월까지 2년이다.



아나운서 OB모임 사우회방문

아나운서 OB모임(회장 정연호) 회원 20여명은 지난 1월 19일, 정동 문화방송 근무 시절을 생각하며 중식당 시안(西安)에서 오찬 회동을 마치고 정연호 회장을 비롯해 차인태, 조석영, 정경수, 정영환, 문무일, 정영희, 김채영, 반주원, 조일수, 이인숙, 한선교 회원 등 15명이 사우회를 방문해 정동 시절을 추억하는 이야기를 즐겁게 나눴다.



2026년 사우회 창립기념 단합대회

- ◆ 일 자 : 5월 14일(목)
- ◆ 장 소 : 양주문화동산

사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순봉(보도)
1월 16일 별세
향년 84세
1968년 기자 입사
정치부장, 해설위원
11대 국회의원 등 4선
경남일보 회장



서규석(편제)
1월 25일 별세
향년 97세
1964년 경력 입사
TV총국장, 라디오국장
방송·신문 담당 상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홍진표(관리)
2월 2일 별세
향년 87세
1968년 총무국 입사
비상계획부 근무



김학운(기술)
2월 11일 별세
향년 87세
1980년 제작기술국 입사
제작기술국 조명팀 근무



조태운(관리)
3월 2일 별세
향년 97세
1964년 입사
기획위원, 경리부장
문화관광호텔 이사



안철환(계열)
2023년 4월 3일 별세
향년 90세
대전MBC 사장
대한통운 사장
동아생명 사장
백제문화개발연구원장

신입회원을 환영합니다



심흥철(관리)
2000년 건축직 경력 입사
건축공사 감독
신사옥추진본부
자산개발국
2025년 정년퇴직



조남근(기술)
1986년 방송기술직 입사
제작기술국 조명감독
영상기술부 조명팀장
2020년 정년퇴직

경조사항

- | | | |
|------------------------|--------------------|--------------------|
| 구 순: 김병철(전주) 37.04.04 | 조동근(기술) 37.05.15 | |
| 팔 순: 목철수(보도) 47.03.16. | 이범수(업무) 47.04.21. | 박종진(편제) 47.04.24. |
| 장두형(대전) 47.04.25. | 김성한(관리) 47.04.27. | 노홍식(편제) 47.04.29. |
| 이근철(편제) 47.05.03. | 이건식(관리) 47.05.11. | 강정수(관리) 47.05.15. |
| 고 희: 박용규(기술) 57.03.18. | 장기재(보도) 57.03.19. | 정철민(기술) 57.04.01. |
| 이용석(편제) 57.04.01. | 윤 혁(편제) 57.04.03. | 송호섭(관리) 57.04.09. |
| 서태건(편제) 57.04.12. | 이성길(관리) 57.04.14. | 전형찬(관리) 57.04.15. |
| 곽재석(기술) 57.04.24. | 김석진(보도) 57.05.02. | |
| 회 갑: 김귀현(관리) 66.04.10. | | |
| 결 혼: 권태일(보도) 아들 01.24 | 하병호(기술) 아들 01.25 | 김종남(기술) 아들 02.22 |
| 송기원(보도) 아들 03.14 | 조남근(기술) 딸 03.14 | 이여춘(편제) 아들 03.28 |
| 차상익(기술) 아들 03.28 | 정상모(보도) 아들 04.04 | 조수원(보도) 딸 04.05 |
| 원만식(편제) 아들 04.19 | | |
| 부 음: 안우정(편제) 부친상 01.23 | 이상운(기술) 모친상 01.25 | 홍주화(기술) 장모상 01.26 |
| 정영수(관리) 모친상 02.01 | 나명수(관리) 배우자상 02.05 | 성경환(ANN) 모친상 02.07 |
| 김병택(편제) 배우자상 02.08 | 이종현(편제) 장모상 02.11 | 이원영(기술) 부친상 02.16 |
| 박상열(편제) 모친상 02.20 | 이보경(보도) 모친상 02.21 | 천복용(기술) 부친상 02.25 |

연회비

- 평생회비: 심흥철(관리)
2025년: 정갑표(기술)
2026년: 최정일(관리) 염영수(편제) 고주룡(보도) 정영환(대구)
 윤남현(대전) 신명현(업무) 고춘호(업무) 강효복(관리)
 이성호(편제) 권혁화(ANN) 이종화(대구) 정진민(관리)
 정진도(전주) 오명균(편제) 조성식(업무) 조남근(기술)
 김억동(보도) 이연구(업무) 정영수(관리)
- 2027년: 방운식(관리)

주소변경/신규

- 편제 이태희 부산 수영구 남천바다로21번길 51 (광안동, 태평양하이츠)
김창제 경기 군포시 수리산로 102 (산본동, 설악아파트)
보도 유덕진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47-10 (목동, 스카이빌아파트)
서민수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미래로 2 (남 가좌동, DMC파크뷰자이)
이석일 서울 동작구 사당로13길 31 (사당동, 두산위브 트레지움)
기술 조남근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2로 11 (장기동, 수정마을 쌍용에가아파트)
관리 이종철 경기 파주시 가람로134번길 91 (와동동, 운정푸르지오 파크라인 1단지)
유조동 서울 영등포구 디지털로 420 (대림동, 보라매 신동아파밀리에)
심흥철 경기 고양시 덕양구 소원로181번길 20 (행신동, 서정마을7단지아파트)

인터뷰

의지와 집념의 무대 김재철 사우(전 MBC사장)의 북콘서트



파리의 겨울 공기는 차고, 두 사람의 대화는 뜨거웠다. 《백건우, 베토벤의 침묵을 듣다》의 북콘서트는 베토벤(1770~1827) 사후 200주년을 1년 앞둔 2월 7일 관훈갤러리카페에서 였다. 천왕성 뮤지컬 배우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저자인 김 대표(아트마 A 사장)는 백건우선생과 파리를 걸으며 베토벤의 고독은 어떻게 음악이 되는지, 본인이 묻고 백건우 선생이 답한 것을 책으로 엮었다고 했다. 파리북 역을 출발해 4박5일 동안 택

시만 4번 탔을 뿐 나머지는 내리 걸었다. 말수가 적은 올해 팔순의 피아니스트는 묵묵히 걷기만 했고 질문을 던지는 저자는 녹음기를 켜 놓고 집요하게 귀를 기울였다. 백건우 선생과의 인연은 신영균 회장의 소개로 시작됐다. 식사 자리에서 만난 인연은 우리나라 외판점 피아노 공연으로 이어졌다. 당시 MBC 사장이던 김 대표가 무대를 주선했고, 그 일로 두 사람은 가까워졌다. 그는 백 선생의 부인인 배우 윤정희를 '누님'이라

부를 만큼 가족처럼 지냈다. 예술가의 고독과 인간적인 일상이 겹치는 이룰테면, 와인을 좋아해 남편 등에 업혀 가는 누님의 모습을 몇 번이고 지켜보아야 했다.

책 속에서 베토벤은 영웅이기보다 고독한 인간으로 그려진다. 그리고 그 고독이 어떻게 음악으로 승화되는지를, 김 대표가 묻고 백 선생은 답한다. 질문은 날카롭지만 과장되지 않고, 답은 담백하면서도 깊이가 있다. 걷는 시간만큼이나 켜켜이 쌓여가는 사유의 시간. 이 책은 단순한 도보 여행기가 아니라, 한 저자가 한 예술가의 침묵을 어떻게 '듣는지'에 대한 기록이다.

어찌다 통화할 때 "사장님"이라고 호칭하면 김 대표는 웃으며 말한다. "나 사장 아니야. 대표야, 대표. 지난 직책은 의미 없어, 은퇴한 마당에 선후배끼리 무슨 사장이야!" 그는 지금 공연 제작사 「아트마A」를 이끌며 뮤지컬을



무대에 올리고, 최근에는 본인이 직접 원고를 쓰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다.

스폰서를 설득해 제작비를 마련하고, 배우를 무대에 올리고, 관객을 모으는 일은 공영방송 사장과는 또 다른 무게일 터이지만 사장을 그만두고 일주일 뒤에 시작한 그 일을 13년째 지속해 오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그의 사업적 감각과 의지, 그리고 집념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김 대표는 사우회에 이 책 50권을 기증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고독이 어떻게 예술이 되는지, 그리고 한 시대의 음악이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통과해 우리에게 오는지—그 질문을 사우들과 나누고 싶었을 것이다.

기자이기 이전에 PD이고자 했고 사장이란 과거의 직함을 내려놓은 김 대표이지만, 인연을 소중히 하고 이야기를 엮는 능력은 여전했다.

지역주택조합원, 박춘평 사주의 새 아파트 입주기



영상미술국 미술부에서 근무했던 박춘평 사우(80년 입사, 2010년 12월 정년퇴직)는 지난해 12월 1일, 서울 성동구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포레 아파트단지(9개 동, 1,353세대)의 35층 짜리 아파트 27층에 입주했다. 그의 아파트 창밖으로 한강과 숲과 도시의 지붕들이 절경이다. 하지만 이런 풍경이 눈에 닿기까지 그는 10년 연속 천신만고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달리 지역주택조합은 시작부터 달랐다. 조합원들이 부지를 한 평 한 평 직접 확보해야 한다. 말이 '확보'지, 협상과 설득, 때로는 인내의 시간이다. 어느 스포츠계 유명 인사의 108평(주택)을 135억 원에 매입하기도 했다. 끝까지 버티는 '알박기'도 있었다. 가입할 때는 장밋빛 조감도가 어른거렸지만, 현실은 매번 고비였다.

주치는 이웃들. 결과만 보면 그는 성공했다. 그러나 인터뷰 내내 "사우 여러분은 정말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아주, 아주 신중히"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했다. 수익률이나 시세 차익에 관한 질문에 그는 손을 내저었다. "긴 시간을 버틸 각오가 있는지, 추가 비용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라고 했다. 지역주택조합은 기회일 수도 있지만 조합원들이 위험을 고스란히 짊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사우회 사무실을 나오면서 그는 자신이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사우들에게 "선택은 각자의 몫이지만 지역주택조합만큼은 충분히 따져보고, 또 따져 보시라"고 당부했다.



조합원 단체 대화방에는 계속 불안한 소식이 났다. 인허가가 늦어지고, 분양가 7억 원에 추가 비용을 8억 원을 마련해야 했으니 10년이라는 기간은 통장의 잔액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유까지 조금씩 갉아먹었다. 서울숲을 내려다보는 아침, 유리창에 번지는 노을과 야경, 엘리베이터에서 마

발전 기금을 주신 분들 (1월 7일 이후)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mbcsau.com>)에 있습니다



이재은(보도) 50만원



신승철(관리) 50만원



조강래(업무) 30만원



하병호(기술) 30만원



문무일(ANN) 20만원



신낙균(편제) 20만원



김준원(기술) 10만원



김종한(관리) 10만원

발전기금 납부 계좌 : KEB하나은행 158-890070-29405 MBC사우회

정동레터

♥ 본사 지하 1층에 입주한 꽃집, 「네오 블루매」가 잘되어야 사우회도 임대료를 편히 받을테니 꽃 한 송이 살 일이 있으면 여자장님에게 전화 한 통 부탁해요~~ 박건미 대표 010-3343-8973
♥ 총회참가 기념품으로 지급된 2만냥 모바일 상품권. 이런 기념품이 낯설어 아직 못찾고 계신다면 핑계삼아 손자한테 전화걸어 통화도 하고, 물어봐서 맛있는 빵 찾아드세요~~
♥ 본사가 사우회에 뺑뺑한 컴퓨터 시스템을 지원했네요. 사우회보가 모터를 달았으니 감사^^

♥ 왜 한문 고전을 공부하느냐는 질문에 고전동호회의 이용구 회원은 "할 줄 아는 게 이것뿐이어서"라는 생뚱맞은 이유를 대네요... 그렇다면 사우회의 고전동호회, 오고 싶은 마음 하나면 에너지 넘쳐주세요!
♥ 사우회보의 '오타자'를 찾아 '스타벅스 커피' 선물을 주는 이벤트는 쭉~욱 계속됩니다. 93호에서는 정동레터에 있었는데 아무도 찾아내지 못했네요ㅠㅠ...(용마비상 ->용마비등)

편집부

MBC 금토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

아이유 / 변우석



2026년 봄, 금기를 깬 신분 타파 로맨스!

4월 10일 | 금 밤 9시 40분 첫 방송